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본격 개시

기사입력 2021. 09. 03 17:33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 개토식
 “마지막 한 분까지 찾기 위해 최선”
 국군 포함 유엔군 다수 수습 기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3일 열린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개토식에서 호국영령을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 백마고지는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다. 국방부는 이곳에서 전투를 치른 국군과 미국·벨기에·룩셈부르크 군 등 유엔군 전사자 유해를 다수 수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번 백마고지 유해발굴은 9·19 군사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백마고지 유해발굴 개토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유해발굴 태스크포스(TF)장인 이상철 육군5보병사단장, 허육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육군지상작전사령부 특수기동지원여단 장병,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현종 철원군수가 참석했다.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9보병사단 장병도 선배 전우들의 귀환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자리를 함께했다.

남 총장은 추념사에서 "지난 3년여의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을 통해 68년간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던 DMZ에서 3000여 점의 유해를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마고지는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우리 선배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사수했고, 호국 영웅들의 희생이 승리의 역사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남 총장은 또 "한반도 산천 초야 어딘가에 묻혀 계시는 영웅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유해발굴작전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도 철원군 DMZ에 있는 백마고지는 6·25전쟁 때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곳 중 하나다. 국군9사단은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전투를 치렀고, 96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미국·벨기에·룩셈부르크 등 3개국도 전투에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점에서 국군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유해 수습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백마고지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유해를 수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화살머리고지에서는 1만㎡당 1.8구가 발굴되는 후방지역보다 훨씬 많은 32.6구가 발굴됐다. 완전유해 형태로 발굴된 비율도 화살머리고지는 발굴 유해 중 45%를 차지했지만, 후방지역은 평균 6.5%였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지난 3년간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으로 68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가가지도 못했던 DMZ 내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지속해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유해 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 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중요하다. 이에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유해 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 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 1577-5625로 하면 된다"며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lgiant61@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린트 하기](#)

[취소하기](#)

